

온누리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진故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공회를 베푸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The Onnuri Weekly

http://news.onnuri.or.kr

• 발행인: 이재훈 • 편집국장: 장선철 • 부장: 김남원 • 기자: 정지은, 오은지, 조유진, 조은실 /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06 / 신문사 3215-3199 / 570-7611 서빙고 793-9686 양재 573-9686

이것이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부모, 청소년, 이웃, 군인, 탈북민, 열방에 사랑을 전도집회, 공회사역, NGO 등 복음 전하는데 주력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가 분명하다. 일선에서 세대, 교회안과 밖,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전도사역본부는 지난 3일 서빙고 본당에서 65세 이상 부모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를 개최했다. 자녀들의 초청을 받은 425명의 부모 중 204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결신했고, 114명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결신율이 무려 75%.

청소년 전도집회

차세대는 지난 6일 희망전도사 닉 부이치치를 초청해 청소년 전도집회를 열었다. 차세대 파워웹브 소속 청소년들의 초청을 받은 4천여 청소년들과 성인들은 닉 부이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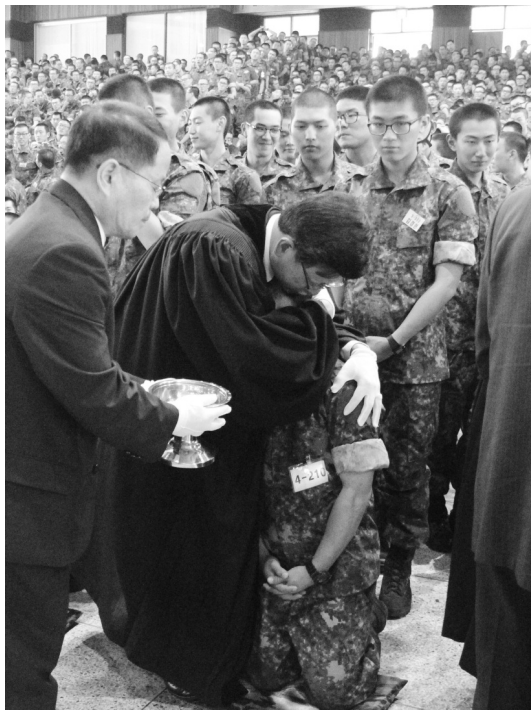
의 메시지를 통해 꿈과 희망을 선물 받았다.

쪽방촌 이웃에게 사랑을

서빙고 공회사역본부 구제봉사팀은 용산구 동작동 쪽방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지난 달 26일 구제봉사팀 주관으로 용산, 서빙고, 한강, 강촌, 이촌, 성동광진 공동체 지체 120여 명이 쪽방촌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다.

탈북민사역 및 진중세례식

남양주 온누리는 탈북청소년대안학교인 '우리들학교'에 비전현금을 전달했다. 남양주 모빌사역팀은 한 달에 한번 씩 탈북청소년들에게 식사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군선교팀은 지난 6월 1일 논산훈련소에서 3천 8백여 장병들에게 세례를 줬다.



교회가 세대, 교회 안과 밖, 민족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진중세례식(좌), 청소년 전도집회(우).

스리랑카에 교회와 학교 봉헌

그리스도의 사랑은 국내뿐만 아니라 열방에도 전해졌다. 스리랑카 올네이션스 국제학교는 14년 만에 교

육공간 증축공사를 마치고 봉헌예배를 드렸다. NGO '더 멋진 세상'은 스리랑카 북쪽 내전지역인 물라티브지역에 교회 및 교육지원센터

를 건립하고 봉헌했다.

▷관련기사 6~10면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노래하라 한반도여!'

7월 4일 임진각에서 아웃리치 발대식

오는 7월 4일(목) 저녁 8시,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국내 캠퍼스 모든 공동체가 참석한 가운데 '블레싱 한반도'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 및 공동체 종강예배를 드린다.

'울어라 한반도여!'를 주제로 열리는 발대식에서는 종강예배, 북한과 한반도를 위한 중보기도, 통일 기원

세리모니, 피스마치(Peace March) 등으로 진행된다. 발대식 이후에는 본격적인 '블레싱 한반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해단식 이전에는 체력과 영적으로 건강한 청년 12명을 선별(대학청년 4명, 재외교포 4명, 새터민 4명)하여 동서를 도보로 횡단하며 예배 및 나눔을 진행하는 '한반도 행진'을, 7월 11일부터 모든 캠퍼

스의 수요저녁예배가 '수요북한선교집회'로 진행되며, 블레싱 한반도 기간 중 하루를 정해 임진각 - 통일대교 - 통일촌으로 이어지는 DMZ 자전거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8월 28일 서빙고 수요목양예배에서는 '노래하라, 한반도여!'를 주제로, 한반도 행진팀 보고 및 각 팀별 보고 등 사역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5면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CGNTV,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6월 10일, 이남식 총장

CGNTV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크리스천 리더들을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가 시청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CGNTV 유재건 대표이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분야의 크리스천 CEO들이 출연해 삶과 신앙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고 있

다. 오는 6월 10일 저녁 9시50분에는 계원예술대학교 이남식 총장이 출연한다.

두란노 추천도서 할인전

두란노 서점이 추천도서 할인전을 연다. 오늘(9일)은 양재 사랑을 앞 원형광장, 다음 주일(16일)은 서빙고 이천만광장에서 도서, 성경, 음반이 할인 판매된다.

온누리 onnuri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 서로를 핑계하고 핑계한다. 그리고는 서로 잘못되었다고 탓대질이다. '목청껏 외치는 사람이 이기는 법'이라며 계속 버틴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이기면 그만이다.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천국복음을 전파하며 각색 병으로

고통 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구름 떼처럼 모여 들었다. ▼ 무리를 보신 예수님은 이들이 보내는 환호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들을 뒤로 하고 묵묵히 산을 오르셨다. 산은 이 땅 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 산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바로 그 자리에 묵묵히 솟아있다. 산에 오르면 생명의 소리가 들린다. 바람소리, 새소

리, 벌레소리, 냇물소리... 온 숲으로 퍼져 나간 녹음의 향연으로 그동안 지치고 막혔던 귀가 열린다. 기기묘묘한 능선을 타고 산꼭대기에 오르면 사방으로 막힐 것 없는 조망이 펼쳐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어 주신 생명이 보인다. 하늘과 땅, 산과 산, 숲과 숲, 마을과 마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생명들이다. 팍팍한 세상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믿었던 오만으로 가득이나 흐르던 눈

이 맑아진다. 오롯이 다가오는 6월의 푸른 풍광을 몸에 담으며 한참이나 취한 듯 자연을 마신다. 그래서 산은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이 땅 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 예수님은 '비움'보다는 '채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치열한 삶의 세계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기에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인 '산상수훈'을 무리를 피해 산에서 가르치셨다. ▼ 정말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이

복되게 살기 위해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귀한 가르침이다. 비움으로 채워지는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3-10). 아멘.

/ jsc@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하나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 됨을 지키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엡 4:1~6

올해 온누리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개인과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때때로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은 언제나 본국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학자 하워드 스나이드는 오늘날의 교회가 기독교가 아닌 교회교가 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신앙이 교회 안에 갇혀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교회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신앙을 교회생활로 국한 시킵니다. 그래서 생활이나 역사속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안에 갇힌 신앙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들은 교회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는 신앙이 생활이 됩니다.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반대로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성도들은 교회 안의 활동에서만 영적인 의미를 찾고, 교회 밖의 생활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끄심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시각을 넓혀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지평을 넓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유래되었는데 여기서 ‘에크’는 ‘~으로부터’를 의미하

고 ‘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선택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혼돈 때문입니다. 그 혼돈이 생기는 이유가 스스로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선택하면 혼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롬 8: 30).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우리가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요 6: 44).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 예수님

참된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라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만약 부르는 사람이 나였다면 절대 부르지 않았을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과 당시 바리새인들의 제자훈련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제자훈련은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탈락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한 사람씩 부르시고 한 공동체로 모아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보십시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 중의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을 가리켜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극우파들은 폭력과 무력을 통해서라도 세리와 로마제국의 하수인이 된 사람들은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그 열심당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만났을 때 긴장감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긴장감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핵심멤버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과 환경 등이 모두 달라 같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놀라운 비밀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부르지 않았을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공동체에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1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

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합당하다는 의미는 저울의 무게를 동등하게 맞춘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권면한다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근거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서와 원리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순서가 바뀔 때가 많 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상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율법은 율법대로 행하면 축복하겠다고 했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축복했으니 받은 축복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몸 안에 들어왔으니 그 몸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네 종류의 하나 됨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2-3절).

하나 됨은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네 종류의 하나 됨이 나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하나 됨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 되어 역사하고 계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본성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인 예수님의 두 개의 본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신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됨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넷째, 지체들끼리의 하나 됨입니다. 첫 번째 하나 됨이 두 번째 하나 됨을 만들고, 두 번째 하나 됨이 세 번째 하나 됨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 됨은 네 번째 하나 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체인 우리가 하나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됩니다. 우리의 하나 됨을 보며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하나 됨 지키는 다섯 가지 태도

하나 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됨을 지키면 나타나는 다섯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겸손, 둘째 온유, 셋째 오래 참음, 넷째 용납하는 것, 다섯 번째는 화평입니다. 다섯 가지 태도를 나열한 순서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해서 화평으로 끝났습니다. 겸손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화평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 됨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를 통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 됨은 내면의 겸손이나 화평에 이르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 태도를 가지는 데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겸손과 굴욕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고, 같은 취급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불쾌해합니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굴욕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태도의 차이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만, 타인에 의해 강제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굴욕을 느낍니다.

문제는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이 겸손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교만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 됨이 주는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화평을 이루게 하는 온유, 오래 참음

두 번째 단계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강함입니다. 그러나 통제된 힘입니다. 부드러운 힘입니다. 모세는 온유

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뜻은 상대방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변화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은 모두 탈락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고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여유와 여지를 허락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도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든 교리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고전 12:20-22).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필요 없다고 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필요 없는 지체가 없고,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욱 중요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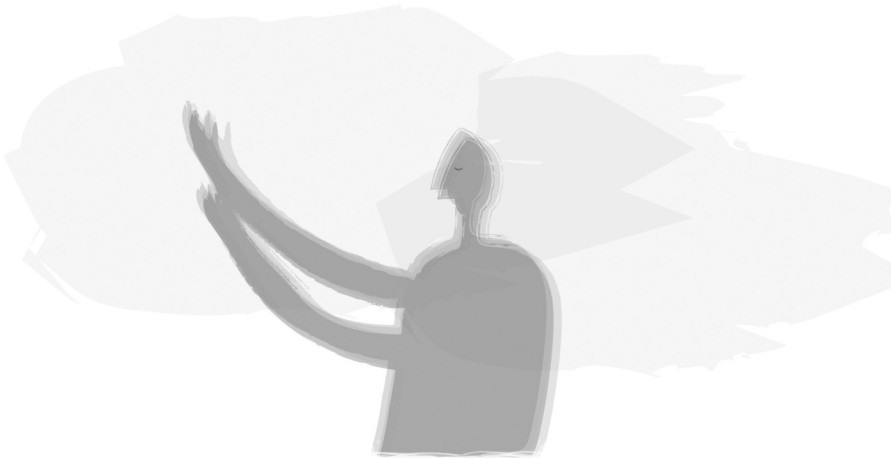
우리가 모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구원을 스스로의 업적이나 공로,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하나 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하나 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일러스트 윤종은 janehome@naver.com



했지만 연약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을 쓸 때 쓰고 쓰지 않을 때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온유를 배우면 마음에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힘을 얻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힘이 없는 이유는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와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하나

용납할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4-6절).

일곱 번씩이나 하나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일곱 번에 걸쳐 강조하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

“지금은 카운트다운 시대입니다!”

카운트 10~0까지 강의 및 공연으로 진행

오는 6월 28~30일에 열리는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은 메인강의 및 선택식 강의, 뮤지컬 공연 등의 특순으로 카운트 10~0까지 진행된다. 집회를 여는 카운트 10은 이상준 목사(대청연합본부장)가 ‘예배를 드리라’로, 카운트 9은 어원 맥매너스 목사(LA모자이크교회)가 ‘열정을 드리라’로, 카운트 8은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가 ‘눈물을 드리라’로, 카운트 7은 ‘마음을 드리라’를 주제로 예배 선택식 강의를 진행한다. 카운트 6는 어원 맥매너스가 ‘생명을 드리라’로, 카운트 5는 박종길 목사(양재온누리교회)가 ‘사랑을 품으라’로, 카운트 4는 다니엘 김 선교사(예수세대운동)가 ‘영혼을 품으라’로, 카운트 3는 ‘세상을 품으라’를 주제로 뮤지컬 〈Until the day〉 공연이, 카운트 2는 도육환 목사(이천선교본부장)가 ‘복음을 품으라’로, 카운트 1은 ‘사명을 품으라’를 주제로 선교 선택식 강의



대청 바이블아카데미가 12주간의 일정으로 지난달 29일 종강했다.

가 진행된다. 카운트 0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열방을 품으라’를 주제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렇게 카운트 10~0까지 다양하고 임팩트 있게 진행되는 컨퍼런스인 만큼 대학청년부 모든 단체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집회를 준비 중이다. 지난 6월 5일(수) 양재 화평홀에서 카운트다운을 위한 첫 중보기도모임을 가졌다. 김승수 목사(MU)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먼저 감사고백하기, 선교, 믿음의 선포”라고 강조하며, 이 자리에 모인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카운트다운 집회와 이 시대의 영적부흥을 위해 뜨겁게 중보했다. 한편 카운트다운 중보기도모임은 지난 5월(수)에 이어 6월 12일(수), 19일(수) 저녁 7시30분 양재 기쁨홀에서 진행된 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영적 부모로 선교 위해 힘쓸 것”

서빙고 장로, 권사 와이미션 1기 종강

서빙고 온누리 장로 및 권사들을 위한 와이미션 1기가 지난 5월 20일, 6월 4일에 각각 종강했다.

총 60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장로 와이미션 1기는 지난 4월 15일을 시작으로, 비전의 땅 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장로들은 스콜 진행 중 양화진 탐방, 안산M센터 방문, 종족 리서치 등을 하며 실제적인 선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수료한 장로들은 “한국교회의 ‘영적 아버지’로서 선교와 기도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총 114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권사 와이미션 1기는 지난 3월 19일을 시

작으로, 서빙고 한동홀에서 열렸다. 지난 5월 28일~ 6월 2일에는 총 9명의 권사들이 스리랑카로 아웃리치를 다녀와 직접 선교 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종강예배에서 다니엘 박 선교사가 한국교회 권사들에게 한국교회의 영적어미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한국 교회의 산 증인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세를 받은 권사들이 영적 어미로 바로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실현시켜드리는 역할을 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서빙고 온누리 장로, 권사들을 위한 와이미션 1기가 종강했다.

“평생 말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제 16기 온누리 전도폭발 수료식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입술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서빙고 캠퍼스 콘서트홀에서 16기 전도폭발훈련 종강예배가 열렸다. 이번 16기는 지난 2월 26일 시작되어 13주 동안의 훈련을 통해 총 81명(1~4단계)이 수료를 마쳤다.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해 ▷송일섭 장로 대표기도 ▷16기 이모저모 영상 ▷간증 ▷특순 ▷학사 및 전도현황 보고 ▷말씀 ▷수료증 수여 ▷시

상 ▷훈련자 격려 및 전폭소개-최봉오 목사 ▷특송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철 목사는 ‘당신을 위한 삶(롬 9:1~3)’을 제목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말자”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자”고 전했다.

수료식의 꽃인 간증시간에는 각 단계별 대표자가 나와 훈련과정을

통해 느낀 솔직한 간증을 전했고, 모범상, 격려상, 공로상, 팀전도상 등 열심히 전도한 수료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상식이 이어져 예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었다.

한편 오는 8월 27일(화)부터 진행되는 17기 전도폭발은 8월 4일(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또한 전도사 역분부 측은 하반기에 전도폭발 저녁반 과정도 준비 중에 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제7회 IBA포럼 개최

28개국 목회자 및 선교사 참석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을 주제로 진행된 제7회 IBA(International BAM Alliance) 서울포럼이 지난 6월 5~8일까지 양재 기쁨홀에서 진행되었다. 2007년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된 IBA 포럼은 비즈니스와 선교, 교회를 연결하려는 취지로 6년 동안 진행해왔다. 이번 IBA에는 전 세계 28개국에서 목회자 및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환영 및 축사에

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BAM(Business As Mission)의 큰 숙제다. 이 포럼을 통해 물질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하며, 제7회 IBA 포럼의 문을 열었다. IBA 포럼은 4일 동안 ▷비즈니스 세계와 하나님 나라 ▷타문화권에서의 BAM활동 ▷예배와 결단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조은실 기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0회 성령수련회

2003년부터 시작된 성령수련회가 10년이 훌러 어느덧 제 50회를 맞이했다. 제 50회 성령수련회는 오는 15일(토)~16일(주일) 양일간 양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이번 성령수련회에서는 친구 약의 성령론, 끝까지 기다린 사랑, 평안과 기쁨, 환란을 견디는 용기 등을 주제로 이해영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특별히 50회

를 기념하는 순서도 마련되어 있다. 참가비는 4만원이며 서빙고, 양재 캠퍼스에서 버스로 함께 출발하고 돌아오는 일정이 다.

한편 수련회가 끝난 후 오는 18일(화)에는 50회 성령수련회 기념 감사예배를 진행한다.

문의: 황보은선 권사 011-1720-5221, 김경옥 집사 010-5729-0153

/ 조유진 기자

자연 속에서 만남 하나님

지난 31일(금) 양재 큐티카페에서 자연목상을 위해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광림 수도원을 찾았다. ‘치유’(막 5:34), ‘풍랑’(눅8:24), ‘빈 무덤’(요 11:25~26)을 묵상 주제로 삼아 진행됐다. 120여 명의 참가자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산책로를 거닐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했다. 고은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을 바라보며 매일을 부활의 삶으로 살 것”을 다짐했다. 큐티카페 종강(14일) 후에도 큐티 나눔방을 통해 큐티모임은 지속된다. 문의: 570-7277, 570-7354

신상우 CCM콘서트, 14일 장천아트홀

양재 온누리 1부 성가사이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노라’로 알려진 신상우(작편곡가 겸 피아니스트) CCM 콘서트가 오는 14일(금) 장천아트홀에서 열린다. 신상우 성가사는 “삶의 한 순간도 놓지 않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번 콘서트(Remembrance)를 준비했다”고 말하며 성도들을 초청했다. 이날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 등 많은 연주자들이 공연에 함께한다.

문의 010-6276-0702

양재 만남의 잔치

날짜: 6월 16일 만남의 잔치 장소: 드림홀(지하2층)
시간: 오후 3시 30분 대상: 5월 16일~6월 1일 등록한 분

강남A 김아솔 김신혜 김찬용 이은림 한동윤	분당A 김광순 김영석 김태성 이명옥 이혜진	분당B 이재연	조영숙 한명희 한효민	신은하 이숙현 이혜경 임선희 정윤선 정홍천	서초C 김경연 이정화	홍정순 안양명 변영희	이동현 이은정 이인숙 이종숙 최의혁
	서초A 김미희 김영	서초B 김진영 박준영		산본안산 김광현		양재 강수영	

아웃리치 발대식 2013 '블레싱 한반도'

민족을 위해 함께 울고, 축복하며 승전가를 부릅니다!

올 여름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 및 전략은 한반도를 축복하는 '블레싱 한반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블레싱 한반도'는 7월 4일 '울어라, 한반도여!'를 주제로 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7월 11일부터 수요일북한선교집회 및 한반도 행진, DMZ 자전거투어를 하는 '블레싱 한반도'로, 8월 말에는 '노래하라, 한반도여!'를 주제로 진행되는 보고회로 마무리된다.

7월 4일 발대식, '울어라 한반도여!'

7월 4일(목) 저녁 8시,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온누리 전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블레싱 한반도'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대식은 '울어라 한반도여!'를 주제로, 국내 캠퍼스 모든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중강예배로 진행된다.

'울어라 한반도여'는 모든 성도들이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와 예배로 동참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집회는 ▷통일 관련 영상 상영 및 기도회 ▷발대식 ▷통일 기원 세리모니 ▷피스마치(Peace March) ▷팀별 소개 및 축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집회 이후 구체적인 실제적인 북한의 상황 및 북한 행정 단위별 지역의 중보기도제목이 담긴 기도책자를 배부한다. 먼저 중보기도 하기에 앞서, 각 공동체와 북한 행정 단위별 지역과의 일대일 결연을 맺을 예정이다. 각 공동체는 일대일 결연이 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 및 통일 후 결연되었던 지역을 직접 돕기 위한 준비도 할 예정이다.



'블레싱 한반도' ... 수요일북한선교집회, 한반도행진, DMZ 자전거투어

북한을 이해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7월 11일(수)부터는 국내 캠퍼스에서 드려지는 수요일예배를 수요일북한선교집회로

진행한다. 북한선교집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 및 '블레싱 한반도' 참가자 및 탈북자 간증 등을 통해 북한상황을 알리고 중보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남북, 디아스포라의 차세대가 하나 되어 분단의 답을 허물고 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한반도 행

진이 진행된다. 한반도 행진은 발대식 후 소요시간 일정에 맞춰 대학청년 4명, 재외교포 4명, 새터민 4명, 총 12명의 인원 중 3명이 한 조(대청 1명, 교포 1명, 새터민 1명)가 되어 매일 큐티를 시작으로 도보, 마감예배 및 나눔 등을 하며,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서울까지 15일 동안 행진하며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국내 전 캠퍼스에서의 북한 이해 및 중보로 도울 예정이다.

이외에도 DMZ 자전거투어를 위해 경기관광공사와 진행 관련을 협의 중에 있다. 통일이 되어 DMZ가 걷히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DMZ 자전거투어는 온누리 성도 300명을 선착순으로, 블레싱 한반도 기간 중 토요일 한 번을 정해 임진각 통일대교 통일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전거투어 후에는 통일촌에 모여 함께 북한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위해 중보기도를 할 예정이다.

'노래하라 한반도여!', 팀별 보고회로 진행

8월 28일(수) 두 달간의 일정을 마치고, 온누리교회 전성도 서빙고 본당에 모여 '노래하라 한반도여!'를 진행한다. '노래하라 한반도여!'는 두 달 동안 모든 일정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고하는 보고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보고회에서는 통일과 북한 선교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 팀별 보고를 기반으로, 추후 온누리교회 통일 및 북한사역, 비전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인/터/뷰 - 도육환 목사



첫째,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눈을 회복합시다!

최근에 정치적으로 남북관계 가운데 혼란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북한을 보게 되면 첫째, 그들이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보장이나 혜택도 누리지 못한 채로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살

“‘기도’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룹시다”

아은 북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으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해왔지만 이번 '블레싱 한반도'를 통해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평화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기도' 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 그리스도가 돌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드시는 진정한 살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평화의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여성기도부 흥운동 마리아행진에서부터 시작된 북한을 위한 기도가 이번 임진각 집회와 7-8월에 진행되는 블레싱 한반도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셋째,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동서독의 통일처럼 정치적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통일

사회 통합적인 통일, 복음 안에서의 통일은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북한선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한국에는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금방 돌아오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북한은 완전히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북한 사람들과 언어는 통하지만 언어조차도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외모, 체형, 얼굴도 달라져서 북한 사람들을 보면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완전 타문화권 선교지입니다. 세계관이 다르고 사람들의 생활양식도 전혀 다릅니다. 타문화가 되어 있는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 진정한 사회 통합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치적통일은 우리의 손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 통합과 민족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7-8월에 열리는 '블레싱 한반도'를 통해 북한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우리 안에서 먼저 통일에 대한 의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세대 차이로 인해 점점 분단의 고착화, 문화의 이질이 커지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윗세대만



임진각 평화누리에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태극기들이 꽂혀있다.

하더라도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의 마지막 세대가 점점 연세가 들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고쳐되어 가는 이 분단의 평화의 통일을 위한 새로운 열망이 교회부터 시작되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통일, 이데올로기나 이전에 있었던 반공파해주의세대에 왜곡된 통일관이 아닌 건강한 통일관을 가지고 통일의 열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지난 7일 닉 부이치치가 4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펼치고 있다.

닉 부이치치와 함께 하는 HUG

하나님 품 찾은 4,000여 청소년 한자리에

복음전도사 닉 부이치치가 한국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찾았다.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 달려온 4,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본당과 두란노홀, 경천홀을 가득 메웠다. 파워웨이브 소속 청소년들과 그들이 초대한 청소년, 성인 성도들까지 모두가 그가 전하는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

FL워십팀과 주정프로젝트팀의 파

워풀한 댄스공연과 간증으로 집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모습을 보인 닉 부이치치의 등장에 박수와 함성이 쏟아져 나왔다. 닉은 청소년들의 뜨거운 반응에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며 인사를 나눴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닉은 한국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마음을 알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가치 없고 쓸

모없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살 시도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본당에 있던 청소년들 중 15~20%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20~25%가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했으며, 그중 실제로 몇 명의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안타까운 사실에 말씀으로 변화될 이들을 기대하며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다.

닉은 희망과 사랑, 용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팔다리가 없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난 하나님과 작년에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렸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지 힘주어 강조했다. 또한 닉은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압박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최선을 아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다”라고 위로했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뜻이 너무 먼 것처럼 느껴져도,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뜻을 찾아라”며 방향을 제시했다.

강연을 마치며 닉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라고 또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의 질문에 자신을 비하하고 자살까지 생각해본 적 있었다고 고백했던 청소년들이 조용히 손을 들기 시작했다. 80분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변화되었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날 메시지 중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였다. 이날 만난 고3인 박정운 자매(도곡 파워웨이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모의고사 성적 때문에 나 스스로를 비하했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니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겼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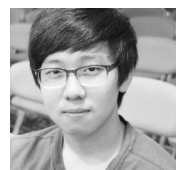
“더 사랑하며 살래요”



힘들때 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함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 김윤식, 김형규, 김하림
(서빙고 파워웨이브)

“입시라는 족쇄를 풀겠습니다”



한국의 고3 학생들이 입시라는 큰 족쇄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족쇄를 풀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그 족쇄를 풀고 같이 뛰면 좋겠습니다.”

/ 박상호(도곡 파워웨이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논산훈련소 진중세례, 3800여 장병 구원

지난 6월 1일(토)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이곳에 군 장병들이 우렁차게 부르짖는 실로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날 연무대교회에서는 올해 열 번째로 진행되는 세례식이 거행되었다. 3800여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세례식에는 온누리교회 교역자 55명, 장로 38명, 권사 55명, 군선교팀 27명 등 총 184명이 참석해 훈련병들을 기도와 섬김으로 후원했다.

장병세례식은 1부 군선교현황보고 및 세례교리문답, 2부 예배, 3부 세례예식, 4부 기념촬영으로 이뤄졌다. 예배는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 >강의선 장로 대표기도 >김수정 성가사 특송 >말씀 >증정식 >축도-이학수 목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종길 목사는 ‘길 진리 생명(요 14:1-6)’을 제목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면서 “참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군 생활뿐 아니라 인생의 승리를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 덧붙여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예배가 끝나고 훈련병들은 경건한 분위기 속에 차례대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나 장로들은 훈련병 한 명 한 명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고, 권사들은 장병들의 머리에 남아 있는 물기를 수건으로 정성스레 닦아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세례를 마치고 나오는 장병들에게는 온누리교회에서 준비한 성경책, 십자가 펜던트, 각종 생활용품, 빵과 초콜릿, 콜라 등의 간식이 선물로 주어졌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우리 모두 진짜 사나이!”



■ 인터뷰



세례의 진정한 의미 되새겨

“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과거의 사건으로만 여기다 오늘 다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마음으로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진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오익석 형제



복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초코파이를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세로워지는 기분이 들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 주한중 형제



아버님 어머님...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행복드림콘서트, 부모님께 '영원한 희망' 선물

65세 이상 부모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가 지난 3일(월) 서빙고 본당에서 열렸다. 깔끔하게 장식된 원형 테이블 위에 준비된 정성어린 도시락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눠 먹으며 집회의 문이 열렸다.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다소 어색해 보이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식사와 교제를 나누며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모습이였다.

행복드림의 본 행사는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저녁 7시부터 진행되었다. 샌드애니메이션 공연, 웰컴 영상, 꿈땅과 파워키즈 특순이 연이어 펼쳐졌고, 이무송 노사연 부부가 나와 그들의 히트곡을 선보이며 집회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만들었다. 초청된 전도대상자들은 연신 박수를 치고 흥겹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워했다.

이어진 토크쇼에서는 코미디언 이홍렬의 사회로 노사연 이무송 부부, 유재건 장로 김성수 권사 부부가 참석해 '금쪽같은 내 새끼라도 이럴 땐 서운하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패널들이 자식을 키우며 일어났던 에피소드와 서운했던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참석한 부모들

은 "맞아, 맞아!"라고 맞장구를 치며 공감하기도 했다.

토크쇼가 끝나자 오미희 권사가 이채 시인의 '아버지의 눈물'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송했다. 그리고 이번 행복드림의 주제영상이 흐르고 메시지를 선포할 이재훈 담임목사가 무대 위에 섰다. 이 목사는 EBS에서 방영한 다큐 '황혼의 반란'을 예로 들면서 "잠시 마음의 시계를 과거로 돌려놓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젊어지고 좋아졌는데,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에 초점을 고정시킨다면 우리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될 것"이라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다. 오늘 자녀들이 선물하는 그 '영원한 믿음'을 마음으로 기쁘게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날의 하이라이트인 세리머니 코너에는 결신카드 작성과 결신자를 위한 기도가 진행되었고, 테이블에 앉은 초청자들에게 장미꽃을 선물하고 화관을 씌어주는 축복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초청된 부모들과 자녀들은 서로 껴안고 손을 잡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번 행복드림에



서는 425명의 참석자 중 204명이 결신,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는 사람이 114명으로 결신률이 75%로 집계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초청했다는 한 성도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진리를 알게 된 부모님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샘솟는걸 보았다"면서 "오늘이 태어나서 가장 큰 효도를 한 기쁜 날이다. 부모님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

다"고 고백했다.

한편 현충일에 떠난 영월 기차여행은 580명이 참석, 훈훈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여성민목사는 기차 안에서 메시지를 전하며 "지금처럼 손자 손녀, 아들 딸의 손을 잡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천국까지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유진 기자 ujjin@onnuri.org

■ 인터뷰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어요!"

저는 딸의 초청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내내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 연예인분들도 직접 보고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훈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좋은 말씀을 통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알고 돌아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알고 믿어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이성화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에 감동"

아무래도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오늘 한번 딸을 믿고 따라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누리교회에 와서 너무 큰 감동을 얻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말씀해주셔서 믿는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도 하나님을 믿고 너무 많이 변해서 딸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놀랍기도 했는데 이렇게 전도집회에 와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 반만순

미소의 나라 스리랑카에 가다



교회와 학교,

올네이션스 국제학교
NGO 더 멋진 세상, 고

한국에서 온 친구들에게 거침없이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곳은 인도 동남부 인도양 해상에 떠있는 섬나라 스리랑카.
모양으로 붙어 있다고 해서 '인도의 눈물'이라고 불린다. 차(Ceylon Tea), 천연고무, 코코넛 등이 유명하다.



반군의 본거지가 있던 스리랑카 북쪽 몰라티브 지역에 몰라티브 교회 및 교육자원센터가 오픈

유난히 맑고 큰 새소리가 새벽을 깨웠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림지대인 스리랑카는 한 폭의 수채화 같다.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열대과일이 탐스러움을 뽐냈고 거대한 나무 아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고온다습한 기후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지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거리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표정이 무척이나 해맑았다. 생김새나 피부색이 달라 쳐다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만나서 반갑다는 환영의 인사였다. 이곳 사람들의 표정을 볼 때마다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을 엿볼 수 있었다. 열대지방에 속하지만 비교적 온화한 기후가 사람들의 정서에도 영향을 준 것일까. 스리랑카의 첫인상은 포근했다.

핏빛으로 물든 아픈 역사

스리랑카는 불교국가다. 그런데 살생(殺生)을 금기시하는 불교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혈전을 벌인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스리랑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계 싱할라족(74%)과 힌두교계 타밀족(18%) 간의 내전이 27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두 종족간의

갈등은 스리랑카가 '실론(스리랑카의 옛 이름)'일 때부터 시작되었다.

1815년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편입되었던 실론이 1948년 독립한 이후 보낸 평화 기간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싱할라족의 탄압 및 차별 정책에 반발한 소수 타밀족의 분리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45년 동안 비상사태와 27년 동안의 전쟁 속에서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궁핍한 삶을 살아왔다.

내전으로 10만 명이 이상이 사망했고, 수십만 명의 부상자와 백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내전지역을 둘러보던 중 전쟁 중에 부상당해 다리를 잃은 여자를 만났는데 내전의 참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비극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정부군(싱할라족)에 맞서기 위해 반군(타밀족)이 자행한 자살폭탄테러, 암살, 납치, 인간 방패 등의 인권유린 사태가 보고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고 폭력적인 분쟁을 겪은 나라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반군이 사용한 무기들을 전시해 놓은 곳에 가 보니 1인용 어뢰, 1인용 잠수함 등의 구식무기들이 있었다. 대부분이 자살테러를 시도하기 위한 무기들이었다.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임산부를 인간방패로 세워 정부군에게 대항했다는 것이다. 핏빛으로 물든 아픈 역사 앞에 할 말을 잃었다.

내전에 지진해일 대참사까지

눈앞에 초원이 펼쳐졌다. 소들이 뛰놀고 탁 트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상쾌함을 만끽할 수 있었다. 행복도 잠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던 초원이 2004년 발생한 지진해일 사망자들의 무덤이란다. 당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초원에 매장했다는 것이다. 무려 천여구나 되는 시신을 한꺼번에.

스리랑카는 열대지방이지만 비교적 온화한 기후에 속한 나라다. 지진과 태풍이 없어 지상낙원이 따로 없었다고 했었다. 때 묻지 않은 해변, 빼어난 풍경, 풍성한 자원, 순수하고 맑은 사람들... 유럽인들은 최고의 여행지로 스리랑카를 손꼽았다. 그런데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던 스리랑카에 엄청난 시련이 닥쳤다.

2004년 12월 26일, 90분 동안 발생한 지진해일이라는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3만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10만 채의 가옥이 전파되었다. 6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말았다. 말 그대로 대참사였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서쪽에서 발생한 해중지진이 강력한 지진해일로 변모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해안을 초토화 시킨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보고되고 있다.

당시 스리랑카 전역이 지진해일 피해를 입었다. 내전의 고통에 지진해일까지. 무슨 말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야할지 답을 찾지 못했다.

치유와 회복 넘어 미래를 향해

그럼에도 스리랑카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2009년 내전이 종식되고, 지진해일 피해도 상당부분 복구가 되었다. 그들은 시련 앞에 좌절하거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견디고 성장해준 것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 올네이션스 국제학교(All Nations International School)가 있다. 올네이션스 국제학교에는 유치원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400여 명의 학생들이

스리랑카의 소망을 노래하다

! 증축, 하용조홀 봉헌 교회 및 교육지원센터 설립

사람들의 표정이 해맑다. 미소로 화답하자 수줍은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웃어댄다. 이
랑카. 정식 명칭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다. 지리적으로 인도의 쾰루나에 눈물
!다. 인구는 2천여 만 명, 면적은 한반도의 1/3.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다. 사파이어와 홍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NGO 더 멋진 세상이 몰라티브 지역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리서치를 했다. 권사 와이미션팀은 내전지역 한
북판에서 스리랑카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가 오픈했다.



이번에 증축한 올네이션스 국제학교 교육공간. 공사 시작 14년 만에 강당(하용조홀), 교실, 도서관 등을 완공하고 봉헌예배를 드렸다.



공부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학생들
이 늘어나 교육이 더 필요하게 되어 증축공사
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완공하고 봉헌예배를
드린 것이다. 새로운 교육공간의 이름은 하용조
홀이다. 강당, 교실, 컴퓨터실, 도서관 등이 증축
되었다.

뜻 깊은 자리를 빛내기 위해 한국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해 도육환 목사, 김창욱 전도
사, 김광동 장로, 권사 와이미션팀이 현지를 찾
았다. 현지인들과 교육관 증축을 축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 자리를 빛냈다. 학생들은 물론 학
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현지 대사관과 지역
유지들도 하용조홀 봉헌예배에 참석해 축하인
사를 건넸다.

“이곳은 꿈과 희망이 샘솟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스리랑카를 넘어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심하고 자녀를 올네이션스 국제학교에 보
내면 스리랑카를 넘어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가
세워질 것이라고, 한국에서 스리랑카를 위해 기
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라

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자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아픈 역사로 신음하는 스리랑카를 위해 하나
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몰라티브 교회 및 교육지원센터

스리랑카 북쪽 몰라티브 지역으로 이동했다.
몰라티브 지역은 스리랑카 반군의 본거지가 있
던 곳으로 내전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이다.

올네이션스 국제학교에서 몰라티브까지 버스
로 이동을 하는데 거리가 만만치 않다. 가는 길
에 하루를 묵어 가야하는 일정이었다.

숲속에 지어진 호텔이 숙소다. 숲속에 있어서
인지 고온다습함을 잊을 만큼 상쾌했다. 이 호
텔은 건물을 짓고 나서 조경을 한 것이 아니라
숲속에 호텔을 지은 것이다. 스리랑카의 참 멋
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이었다. 일행 중에 산
책 중 야생코끼리를 목격한 이도 있었다. 이것
이야말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스리랑카의
매력이었다.

북쪽 지역으로 이동 할수록 분위기가 살벌해
졌다. 반군이 활동했던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
는 신분확인이나 필수라며 여권검사를 했다. 한

나라에서 두 번의 여권검사라니. 어쨌든 아직도
경계가 삼엄했다. 한 시간이 더 달렸을까. NGO
‘더 멋진 세상’에서 지어준 몰라티브교회 가
보였다. 현지인들의 환영이 대단했다.

몰라티브교회 및 교육지원센터 헌당예배를
드렸다. 한국어, 싱할라어, 타밀어, 영어로 통역
을 해야 하는 웃지 못 할 광경이 펼쳐졌지만 천
국잔치가 분명했다.

“교회가 몰라티브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석 달이 걸렸다고 한다. 무
리한 일정이었지만 해냈다고 말하는 현지인에
게서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 자신감이 모여 몰
라티브 지역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
다. 몰라티브교회는 주일에는 교회로, 평일에는
교육문화센터로 활용된다. 현지인들이 몰라티
브교회의 문턱이 닳도록 출입하며 복음에 빛진
자로 전도하는 삶을 사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내전지역을 둘러보았다. 적십자에서 지어준
빨간색 집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큰 웅덩
이가 보여 무엇이나고 물었다. 포탄이 떨어진

곳이란다. 벽에 난 총탄 자국, 무너진 가옥 등 아
직 내전의 상처가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은 곳
이 많았다.

스리랑카에는 아직도 지진해일과 내전의 상
처가 남아있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전쟁의
상처가 몸에 남아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었다. 몰라티브 해안가에 위
치한 Church of Prayer Mission의 조셉 목사는
지진해일이 일어났을 때 기둥을 잡고 살았지만
어머니와 아내, 아들과 성도 10명을 잃는 아픔
을 겪었다.

순수하고 맑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스리랑카.
그 순수함 뒤에 감춰진 눈물이 가슴 아팠다. 전
쟁과 자연재해로 그들이 겪었을 아픔을 생각해
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다.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답이다. 하나님은 그곳에
서 분명히 일하고 계셨다. 교회와 학교를 세워
상처 입은 자녀들을 어루만지시고, 희망찬 미래
를 꿈꾸게 하셨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
대하게 하셨다.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얼마
나 아름다운가.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6월 비전헌금을 탈북청소년대안학교인 '우리들학교'에 전달했다.



번, 대여섯 가지의 반찬을 직접 만들어 준비한다"면서 "이 사역은 단순히 밥 한 번 먹이는 것이 아닌 통일의 때에 리더로 섬길 이들과 북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는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섬기고 있다"고 전했다.

남양주의 탈북청소년 섬김 사역의 출발은 남양주 온누리미션팀의 동남아 지역 다문화가정 섬김 사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타지를 섬기다보니 자연스럽게 한민족인 탈북자 및 북한선교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남양주 지역뿐만 아닌 인근 지역 탈북자들에게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탈북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다 우연한 기회

에 우리들학교 사정을 들었다. 선교담당 윤지준 장로는 "우리들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는 마음으로 점심식사 봉사부터 시작하게 됐다"면서 "한두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돕게 된 이 사역은 북한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주춧돌 사역이라 생각한다.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돕길 소망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일(수)에는 경기도 양평군 용담리에 위치한 세미원에서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연과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작은 정성, 큰 사랑 담았다

남양주, 우리들학교에 비전헌금 전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우리들학교'에 작은 정성, 큰 사랑을 담은 비전헌금을 전달했다.

지난 7일(금) 서울 관악구 신사동에 위치한 우리들학교 교실에서 비전헌

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백상욱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와 윤지준 장로, 우리들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 목사가 우리들학교(윤동주 교장) 측에 헌금을 전달했다. 백 목사는 "탈북청소년과 도움이 절실한 사

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국교회 품으로 돌아온 나그네들에 사랑 어린 관심을 보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오후 12시부터는 남양주 모빌사역팀이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준비한 풍성한 식사가 마련됐다. 모빌사역팀 정인숙 팀장은 "식사는 한 달에 한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박대훈 김인균 정은영 홍은심	영등포구로	김미성 김현숙 김복남 유정경 김윤선 김윤정 김종식 조승찬 김현승 문화정 노재준 배성환 우혜진 서정원 이상은 김태희 이석현 한정훈	일본어예배	HSIEH WEI SHUN 조승찬 INAGAKI AKITSUGU 조승찬 손경민 이대경 윤예린배수영 이효정 오선영	이주엽 양태노 이형만 김재홍 정윤진 김상순 진명연 이경수 김수영 방종애 양찬일 황철성 윤수미 송금호 이정은 김귀남 이주현 조승욱 전유경 백소영 정명희 이상심 조소현 최태은 주서영 김교남 한보현 심정승 황지현 이미숙	이승현 이상욱 이정민 송기현 표나혜 이영애	양재	김주복 임명희 김민주 심미리 김옥진 손윤자 김해진 이임배 박민경 조선희 박희영 이영미 신초자 정민희 이동열 이인국 이시윤 김준영 이윤남 이혜준 이현정 박기연 장미례 구자남 장영생 김상기 정명숙 김정희	분당A	박경애 이상희 박현선 박승희 윤종중 고영신 이하영 문선희 임형국 유태용 정은영 이상희 최정숙 문선희 홍양순 김경민	분당B	김태진 백위현 박혜정 이은경 설원희 권혁은 이윤중 김현 지현주 조옥환	신분안산	임미경 김수임	서초A	김동영 이성복 엄선영 문윤자 윤진숙 김남미 주민철 차두희	서초B	노정희 김경희 이복현 심성규 이수영 진형중 이용일 정용주 이혜연 김정란 정승욱 이동엽 한지영 김희준	서초C	권성란 진달래 백솔복 정문희 이성진 황윤동 전원자 정미옥	송파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과천의왕	김민 임영두 박민희 홍성애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C	강리나 윤경옥 김여진 최미애 김 효 김도희 남정이 박종희 박덕홍 조익성 박희정 양미혜 박희자 김현옥 성준면 나 영 윤기준 이범구 오소녀 정재원 이미현 이숙경 조용남 이범구 황진기 박진구	강남D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E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F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G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H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I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J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K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L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M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N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O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P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Q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R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S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T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U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V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W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X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Y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강남Z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서빙고	가정사역	강서	강서김포	강촌	고양은평	관악금천	기타	김포	노원
김양미 구본의 김준이 이재철 여의주 박은아	김해원 황윤익	김봉철 이광정 성진호 채홍장 우성암 노소용 최훈재 송성민	김병철 이광정 성진호 채홍장 우성암 노소용 최훈재 송성민	김양미 구본의 김준이 이재철 여의주 박은아	김해원 황윤익	김봉철 이광정 성진호 채홍장 우성암 노소용 최훈재 송성민	김병철 이광정 성진호 채홍장 우성암 노소용 최훈재 송성민	김양미 구본의 김준이 이재철 여의주 박은아	김해원 황윤익

영등포구로	동대문중앙	동작	마포	강서김포	강촌	고양은평	관악금천	기타	김포	노원
김미성 김현숙 김복남 유정경 김윤선 김윤정 김종식 조승찬 김현승 문화정 노재준 배성환 우혜진 서정원 이상은 김태희 이석현 한정훈	김해원 황윤익	김봉철 이광정 성진호 채홍장 우성암 노소용 최훈재 송성민	김양미 구본의 김준이 이재철 여의주 박은아	김해원 황윤익	김봉철 이광정 성진호 채홍장 우성암 노소용 최훈재 송성민	김병철 이광정 성진호 채홍장 우성암 노소용 최훈재 송성민	김양미 구본의 김준이 이재철 여의주 박은아	김해원 황윤익	김봉철 이광정 성진호 채홍장 우성암 노소용 최훈재 송성민	김양미 구본의 김준이 이재철 여의주 박은아

일본어예배	일산	요셉	서대문	서빙고	성동광진	성북	양천	이촌	한강	S브릿지	W	과천의왕
HSIEH WEI SHUN 조승찬 INAGAKI AKITSUGU 조승찬 손경민 이대경 윤예린배수영 이효정 오선영	김민성 김현성 김민정 최혜정 김순아 조문희 박민숙 정혜옥 오신혜 조문희 이동주 백대원 이은림 이명희	김보라 정애영 김해화 정영채 문수정 김민선 이강숙 황익숙 전경애 나소혜 정규리 김재희 정진희 강은주 지서희 황익숙 최인철 허백 황윤주 최영호	박미실 채정자 최진영 유두석	엄희영 백경아 이정은 정미경	김상운 이민식 이성신 서원숙 전보연 이계숙	박미선 김동춘 서영정 이승혜 임순례 박한나 정덕호 이완구 조병철 박영규	윤여필 김석중 강은영 김미숙 김근호 이도희 김남경 김경자 손수민 장경문	신순목 최미혜 강재영 조문희 곽승경 방호순 김종훈 이길수 나명희 안치숙 백대현 황영규 서현일 김미숙 위다연 안치숙 윤지현 강현진 이기영 변준석 장동형 안태환 전원준 이통형 최현미 김주희	김영호 권태일 김유미 장경희 나영숙 강영희 최종현 정찬성	박상희 이지현 손대연 한상훈 신미정 박숙희 이남재 이다선 이영진 김태규 이정원 김윤정	김고은 이정희 김은진 이은경 배미은 양미화 유경학 도윤포 윤아랑 양미화	김민 임영두 박민희 홍성애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안양평촌	양재	Point5	Bridge33+	캠퍼스	수원	대청	갈렐	여호수아
조성경 이금숙 홍사민 한상후 홍은경 김은옥	김주복 임명희 김민주 심미리 김옥진 손윤자 김해진 이임배 박민경 조선희 박희영 이영미 신초자 정민희 이동열 이인국 이시윤 김준영 이윤남 이혜준 이현정 박기연 장미례 구자남 장영생 김상기 정명숙 김정희	배성은 남은하 유태승 윤석진	김형근 박동현 변지영 윤애경 이기훈 류경환 임신화 박영숙 장재호B 이상준 장지연 윤주영 함희경 김광순 홍한아 조수영	김찬 이인숙 김재룡 호은실 김원용 최정수 김정조 문범진 문지현 김결문 박지은 이영자 박진주 신정은 소은선 유은아 이옥선 윤춘경 이인우 최기철	김찬 이인숙 김재룡 호은실 김원용 최정수 김정조 문범진 문지현 김결문 박지은 이영자 박진주 신정은 소은선 유은아 이옥선 윤춘경 이인우 최기철	권경안 방경훈 김민지 조 선 조소영 김귀남 최유경 윤선숙	권경안 방경훈 김민지 조 선 조소영 김귀남 최유경 윤선숙	강지은 조혜련 권주리 신정은 김기영 류현수 김은영 김은영 김신영 홍미남

Harmony	캠퍼스	수원	대청	갈렐	여호수아
공윤택 오수아 이유니 신명화 최윤정 임소현	김찬 이인숙 김재룡 호은실 김원용 최정수 김정조 문범진 문지현 김결문 박지은 이영자 박진주 신정은 소은선 유은아 이옥선 윤춘경 이인우 최기철	김찬 이인숙 김재룡 호은실 김원용 최정수 김정조 문범진 문지현 김결문 박지은 이영자 박진주 신정은 소은선 유은아 이옥선 윤춘경 이인우 최기철	김찬 이인숙 김재룡 호은실 김원용 최정수 김정조 문범진 문지현 김결문 박지은 이영자 박진주 신정은 소은선 유은아 이옥선 윤춘경 이인우 최기철	권경안 방경훈 김민지 조 선 조소영 김귀남 최유경 윤선숙	강지은 조혜련 권주리 신정은 김기영 류현수 김은영 김은영 김신영 홍미남

김신혜 김경심 김태진 김진세 김정근 박세훈 김연철 박대수 남영우 김재곤 박광희 임성화 박민정 안지연 박주희 임한복 박지혜 이상자 박희원 신미정 신광섭 정재호 심은영 최찬용 안광영 홍해남 여정호 김영우 오효정 홍영옥 유홍석 박해한 이기를 김정심 임지희 조경희	장지혜 황미하 전영필 정현진 조수진 우주연 최낙훈 이훈호 최원석 이기현 한병학 노경호 한이름 정희선 허은경 최은경	J4U 변노을 김세은 서글 문연정 이진옥 박금봉
--	--	-------------------------------------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6월 16일(주일) 2부예배 수료대상자 오전 8:30분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수료대상자-서빙고 분당 우측 성가대석 앞/양재 수료대상자-양재 사랑성전) -수료증은 수료예배 후 해당 캠퍼스 일대일안내데스크에서 배부합니다. (서빙고-본관 1층 일대일안내데스크/양재-사랑성전 로비 일대일안내데스크)

서빙고	김대진 목사반	강예영	김태운	정연주	진선미	김명자	스티브	이성준
박에스터 배미선 서정희 손은유 염혜숙 유희석 김영미 동두봉 서설화 손주하 신성호 신영미 이호숙 정세화 최선준	김경자 김신애 김세원 김지나 박태훈 백진숙 변지희 선영미 원미슬 이인범 이영빈 장부환 장원규 전영성 정우균	김태호 남해경 박경옥 박선화 박수성 박수진 박윤희 방해랑 백정화 석성숙 송미자 송현정 유정순 유지영 유혜정	김태운 남해경 박경옥 박선화 박수성 박수진 박윤희 방해랑 백정화 석성숙 송미자 송현정 유정순 유지영 유혜정	지미애 천미숙 최연희 최주은 최 훈	진선미 진혜영 최희주 현해련 홍순희 강남석 강혜선 김석규 박은주 이수빈 김진숙 박경호 조승찬 최백춘 최종길	김명자 김성강 김정은 김혜영 맹신자 백재구 김동준 이꽃봉 이영갑 조승찬 최백춘 최종길	이성준 이용수 이주은 이환경 임수희 장영준 조영훈 주명숙 최기영 최지현 함선영	

강영일 목사반	김영철 목사반	공진수 목사반	유수열 목사반	하카마 타미카 목사반	이철규 목사반	이동훈 목사반	박태영 목사반
김매화 김성일 김용순 김진백 김호숙 문주영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김금희 김모신 김신자 김영상 김용만 김재정 김정현 김정담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김은정 김윤희 박민화 홍정경 박임희 강숙경 이학주 김점숙 최원빈 김창현 한경이 박혜옥

동자동에 전해진 ‘사랑의 손길’

함께 나누는 삶이 더욱 아름답다!

구제봉사팀 - 쪽방촌 이웃돕기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서울역 맞은편 남산으로 오르는 험난한 길목에 위치한 이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26일(주일) 서빙고공흔사역 구제봉사팀 주관으로 용산, 서빙고, 한강, 강촌, 이촌, 성동광진 공동체가 함께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오랜 사전 회의와 나눔 계획, 플로잉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 선물 패킹 등 정성어린 손길로 준비한 이번 쪽방촌 이웃돕기는 6개 공동체 총 120여 명이 참석해 그 의미가 더 컸다.

허원희 목사는 “우리 모두가 온누리교회의 ‘사랑의 대사’가 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길 바란다. 이것이 오늘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도 공흔한 마음을 품고 돕는 사역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쪽방촌 이웃돕기가 이뤄진 당일 오후 2시 서빙고 캠퍼스 로비에 모인 봉사자들은 기도로 무장하고 새콤어린이공원에 집결했다. 이곳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사랑의 선물세트를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집까지 함께 찾아가 교제를 나누는 시

간을 가졌다. 사랑세트는 참치캔, 컵라면, 햇반, 김, 세제, 스펀, 사탕, 치약 칫솔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예쁘게 박스 포장한 것으로 어르신들이 무척 좋아했다.

봉사자들과 함께 쪽방촌 어르신 한 분을 따라 집안으로 들어서니 2평(6.6㎡)이 채 안 되는 공간, 성인이 간신히 누울 수 있는 비좁은 방에 살고 계셨다. 암 투병 중이시라는 김정길 어르신은 오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양복까지 차려입으셨다고 했다. 좋은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그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다.

봉사자로 참여한 이기섭 집사는 “실제로 저분들이 바라는 건 작은 선물보다는 만남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들이 도우러 왔지만 오히려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동자동 쪽방촌 풍경

인터뷰

“소외된 이웃을 진정으로 품게 되길!”



저는 용산공동체 내 공흔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용산구 내에 살지만 이곳에 900세대가 넘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공흔사역 주간에 6개 공동체가 같이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를 공감하고 도와주는 시간이 생겨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는 오늘 3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흔함을 품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선물로 위로하지만 진정으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서 공흔사역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임상범 집사(용산공동체)



새콤어린이공원에 모인 쪽방촌 어르신들 모습.



공흔사역 구제봉사팀은요...

■ 앞으로의 계획

1. 구제봉사활동에 사랑의 쌀을 구제미(米)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 (교회결혼예배 시 축하 화환 대신 ‘사랑의 쌀(러브미)’로 대체하기 등)

2. 공동체 구제사역 활성화

온누리교회 각 공동체가 속해있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에 맞는 구제사역을 실행함으로 공동체별 구제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3. 노숙인, 쪽방촌 사역 지속

서울역과 영등포역 주변의 노숙인 교회, 쪽방촌 사역을 정기, 지속적으로 진행. (현재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노숙인을 돕고 있는 노숙인교회 각 2곳을 매월 정기후원하고 있음)



쪽방촌 이웃에게 전해진 사랑의 선물세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

길공동체 개척, 5월 12일 한성대학교 첫예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 46:11).”

‘Go to the Nations(막 16:15), Come to Worship(요 4:24)’을 표어로 삼고, 길공동체가 성북 지역에 또 하나의 예배 처소를 세웠다. 2013년 5월 12일(주일), 한성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척예배를 드렸다.

윤석원 목사(길공동체)는 “한성대학교 캠퍼스에 예배자로 모인 길공동체가 증인으로서 열방과 땅 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한다.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며, 이 영성으로 삶이 예배가 되고, 직장에서도 선교가 이어지길 바란다. 이곳으로 나와 보니 우리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졌다. 예배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는 영성을 세상에 흘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재 길공동체 청년들은 교회와 세상, 두 곳을 밟고 있다. 이곳에서 600명의 태신자들을 세워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각 순장당 중 한 순장당 5명의 영혼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지난 주일(6월 2일), Grand open예배

지난 주일(6월 2일), Grand open예배에는 길공동체의 개척을 축하하기 위해 대청 타공동체 교역자 및 멘토, 성인공동체에서 참석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또한 대청 9개공동체에서 떡을 준비해 축하인사를 했다.

이날 Grand open을 축하하기 위해

이상준 목사(대청연합본부장)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렘 4:1-6)’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 통일되어 화해자로 사는 것이다. 이 나라, 민족, 열방을 화목 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길공동체 역사

2007년 10월 9일 오후 4시 30분, 서빙고 비전홀에서 첫 예배를 시작으로 탄생한 대청 길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젊은이들의 공동체가 될 것’을 선포하며 2007년 10월 21일에 공식 출범했다. 이날 500여 명의 지체들과 교역자, 멘토들이 참석해 ‘참된 길’로 나아가는 길공동체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공유했다. 그 당시 고 하용조 목사는 영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공동체의 이름처럼 길공동체에 온 모든 지체들이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평화를 실현하며, 비전을 갖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또한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붙들고 출범한 길공동체는 ‘비전, 창조성, 문화, 전문성, 거룩’을 공동체의 핵심가치로 삼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길공동체 이름인 ‘길’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의미를 담아 ‘God is Love’의



약자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하나님 사랑의 실체인 오직 한 길(One Way)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공동체에 들어오는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비전)을 발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광야에 새로운 길을 만들며 로드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세상 밖으로 나온 길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위대한 선교(Great Mission), 열정적인 예배(Intense worship), 탁월한 제자양육(Leading Discipling)의 미션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예배와 선교의 열정의 회복되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길공동체에는 예배, 새가족, 예술(구 문화), 소망(구 비전), 기쁨(구 긍휼), 미션(구 선교) 등의 그룹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지금

까지 길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각자의 가정, 직장, 나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세상을

바꾸는 미션공동체다. 길공동체가 하나님을 세우신 비전을 가지고 이곳 성북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 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기대한다.

/ 오은지 기자oej@onnuri.org

■ 길에서 만난 청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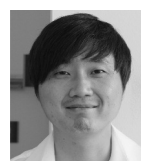
하나님의 뜻과 소망 발견하기를



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박익수 형제

강북 지역 복음화를 위한 공동체 되길



“온누리 대청에서 그동안 개척한 공동체가 많았어요. 그중에 갈렙공동체를 통해 성인공동체가 세워진 지역이 바로 강동과 강남인데, 강북에는 대학부 외에 청년부가 나간 곳이 길공동체가 처음이에요. 저희가 나온 이 자리에 성인공동체가 세워지고, 강북에 또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져 캠퍼스 복음화와 강북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 최예준 형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동체 되길



저희 길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힘을 모아 개척과정을 거치면서 이곳에 예배를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앞으로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길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 홍영기 형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로 드러지길



“이곳에서 개척을 경험하는 시기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하시는 일들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드러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공동체가 캠퍼스 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 류혜식 자매

■ 인터뷰

“캠퍼스 복음화 이뤄가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윤석원 목사(길공동체)

서빙고에 있을 때 예배하던 인원이 560명이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나오면서 예배시간 변경 및 교통편과 장거리의 이유로 100명 정도가 줄었어요. 현재 길공동체 지체들의 연령대는 20대 후반~30대 초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지체들과 함께 외부 개척 공동체 장소인 한성대 주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길공동체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역량을 감당하는 공동체, 구령의 열정이 있는 공동체, 전도에 열정이 있는 공동체, 야성있는 청년들이 사역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선, 한성대로 개척하게 된 배경은 대학생과 캠퍼스 복음화율이 3%미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학 캠퍼스의 예배장소 개척을 알아봤어요.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도 접촉했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한성대학교 내에 예배를 세우기를 수년 동안 기도해 오신 김덕자 권사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실은 이곳이 거리상으로 너무 멀고, 예배 시간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차세대들

섬기는 청년 교사들이나 부친이나 경기도 인근의 지역에서 오던 지체들은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죽어가는 대학생과 젊은 청년들을 깨우라는 사명으로 저희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노방전도 및 찬양을 하고, 매월 셋째주에는 전도예배를 드릴 예정이에요. 또 하나는 주변 교회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인근 교회에 등록된 지체들을 내부적으로 등록을 받지 않을 예정이에요. 수평이동으로 부흥하는 공동체가 아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도해서 캠퍼스 복음화를 이뤄가기를 기도합니다.

/ 윤석원 목사(길공동체)

양재 스포츠선교팀

“숲속의 천막탁구장 설치했어요”

지난 5월 22~28일까지 필리핀 보홀섬 삼복지역 숲속으로 개인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포장도 되지 않은 숲속, ‘밀림’이라 불려도 무방할 것 같은 길을 20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에는 어윈 목사님 부부와 남미선 선교사님이 현지 사람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처소였다.

내가 가져간 탁구대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집 앞 마당에 비를 막기 위한 천막과 더불어 설치되었다. 에어컨이 뱅뱅하게 나오고, 고급 목재로 깔려 있는 바닥이나 라커룸, 부대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한국의 그 어떤 탁구장보다 맨땅 위에 세워진 탁구장이 훨씬 더 좋아보였다. 공중의 천막과 더불어 탁구대가 설치되는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내내 신기하고, 재미있고, 감격스러우면서 감사하기까지 했다. 그 감동을 혼자만 느끼기에 아까워서 몇 장의 사진과 더불어 아웃리치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주셨던 온누리 탁구선교회 팀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숲속의 천막탁구장’이 세워졌다.

제1회 온누리배 숲속 탁구대회 개최

탁구대가 설치되자 현지 청년들이 탁구를 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생전 처음 잡아보는 탁구라켓이 어색할 것 같은데도 모두들 공을 잘 넘기며 즐거워했다. 시간이 점점 지나고, 한 게임, 두 게임을 하면서 슬슬 재미를 붙여갔다. 동네에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어 탁구게임을 구경했다. 점심식사 후 ‘제1회 온누리배 숲속탁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시험이 점점 치열하게 전개되자 신고 있던 슬리퍼까지 벗어던지면서 맨발로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도 보였다. 수상자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수여했고, 탁구대회일정은 어윈 목사님의 기도로 마무리 되었다. 이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상상조차 못했던 모든 장면과 순간들을 직접 경험해보니 무척이나 즐거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탁구, 전도와 선교의 훌륭한 도구

문화적, 정서적으로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현지 종교로 인해 이곳 사람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전하기가 너무도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남미선 선교사님이 이번 탁구대 사역을



보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워하는 현지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탁구대 하나가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데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확신한다”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번 아웃리치를 계기로 이곳에 탁구대가 한 두 개씩 늘어나서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운동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경험하기를,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교지에도 탁

구대가 선교와 전도의 소중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그 땅의 젊은이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항상 나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거룩한 사역에 보잘 것 없는 나를 가까이 사용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한다.

/ 김영욱 집사(양재 스포츠선교팀)

대청 순원 PREP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정”



대청에서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는 여정인 PREP이 지난 5월부터 또 다시 진행되었다. 지난 4월, 대청에서 진행된 순장 및 리더십들의 PREP(거지전도여행)에 이어, 지난 5월에는 순원 PREP이 18일 허브공동체를 시작으로, 오는 6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올해 대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순원 PREP은 총 63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강원 지역에서 중보기도 및 전도 그리고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를 세우는 등 다양한 사역을 섬기며 진행되었다.

그중 지난 5월 25일, 경기도 구리지역으로 거지전도여행을 떠난 이지영 자매(요셉공동체)에게 사역 현장의 에피소드 및 간증을 들어 보았다.

“구리시에 있는 정자공원 입구에서 찬양을 부르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거리를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찬양하는 저희에게 관심을 보이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죠. 이들 중 영접기도를 하신 분들에게는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교회에 반드시 다녀야 한다고 했더니 다녀갔다고 하셨어요.”

이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 영혼들을 위한 지속적인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지역교회의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그 영혼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순원 PREP

팀원들은 모두 몇 차례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또한 마을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탄 것을 깨닫고 중간에 정류장에 하차해 그곳에서 즉흥적으로 찬양을 부르는 경험도 했다.

“팀장인 제 실수로 버스를 잘못된 방향으로 탔는데 팀원들이 원망하는 마음 없이 ‘이곳에서 찬양하기 위해 버스를 잘못 탄 거 같다’고 이야기해줘서 무척 고맙았어요. 다시 버스를 탔을 때, 그 버스 안에서 한 영혼을 만나 영접기도를 했어요. 이 영혼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 팀을 다른 방향의 버스를 타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PREP을 위한 준비기도 필요

마지막으로 순원 PREP에 대해 이렇게 총평했다. “거지전도 여행자체가 아무런 계획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다보니 아무런 준비 없이 당일치기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PREP을 위한 준비기도를 충실히 하면서 ‘PREP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샘플을 가지고 임하면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말할 때 모든 사람이 주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위엄을 알게 된다는 말씀을 따라 공원입구에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류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겨자나무

천국(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은 마치 ...와 같으니”(The kingdom of God is like...)의 형태를 띠는 것이 많다. 하지만 비유 속에서 ‘...에 해당하는 것은 성서시대 생활풍습에 익숙하지 않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장애물로 다가온다. 예를 들어 불을 보듯 분명하다(명약관화)라는 말을 현대인들이 쓰지만 불이 발견되기 전, 구석기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오히려 수수께끼처럼 다가올 것이다. 이 비유에서도 ‘겨자나무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된다.’

이스라엘을 찾는 순례객들에게 가장 은혜로운 장소는 예루살렘보다 오히려 갈릴리 호수다. 2월경에 갈릴리 주변에는 제주도의 유채꽃과 비슷한 겨자나무, 실제로는 겨자풀이만 발한다. 갈릴리 호수가 저 멀리서 보이면 연신 탄성을 자아내다가 주변에 잡초처럼 만발한 노란색의 풀을 가리켜 “저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겨자나무다”라고 말하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진다. “저 풀이 어떻게 큰 나무로 자라서 새가 깃들 수 있지요?”

결코 새가 깃들 수 없는 기껏해야 18m까지 밖에 자라지 않는 풀이 겨자나무라면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것이다. 저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든 그 겨자나무가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든지... 하지만 아쉽게도 정답은 후자에 해당한다.

성지 이스라엘에 와서 겨자나무를 보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기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겨

자나무가 새가 깃들 수 있는 큰 나무로 생각한 다. 마치 농촌에 가본 적이 없는 도시 아이들이 쌀이 쌀나무에 맺히는 열매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비유에서 초점은 겨자나무가 길거리에 널려 있는 대표적인 잡초라는 데 있다. 그런데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잡초에 불과한 겨자씨를 자기 채전(정원)에 갖다 심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시로 자라는 잡초를 뽑아주는 것이다. 잡초는 정원에 갖다 심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뽑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잡초의 운명이다.

겨자씨가 대표적인 잡초라는 사실은 갈릴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으로 통했을 것이다. 이러한 잡초의 씨앗을 자기 정원에 갖다 심었다는 데 놀라운 역설이 있는 것이다. 어디 이 뿐인가? 여기에는 당시 랍비들이 즐겨 쓰는 과장법도 들어있다. 잡초 풀에 불과한 겨자의 씨앗을 정원에 갖다 심어 잘 가꾸어 새가 깃들 정도의 큰 나무로 자라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초점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는 잡초에 불과한 갈릴리의 어부들을 훈련시켜 인류의 위대한 거목으로 키워내시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비유를 발 밑에서 들었던 당시의 민초들은 아마도 심장이 터질듯한 흥분과 감동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 류모세 선교사(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대표)

